

# 광주 중외공원에 '아시아 예술정원' 만든다

### 190억 들여 미로정원 등 꾸며 광주시 내년 국비 27억 확보

중외공원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체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대표적 문화예술 쉼터인 중외공원에 '아시아 예술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2020년 사업 예산으로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 예술정원은 3만5천㎡ 규모로 총 사업비 190억원(국비 95·사비 95)이 투입



광주 중외공원 전경.

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예술정원에는 중국·인도·중동·일본 등 아시아 문명을 테마로 하는 1만9천㎡ 규모의 아시아 문화정원이 조성된다.

또 노후 어린이대공원지구 유희시설 주변에 6천㎡의 자연체험형 미로정원도 마련된다. 이 밖에 문화예술회관과 중외공원을 잇는 특색있는 광주의 랜드마크로 518m 길이의 공중보행로도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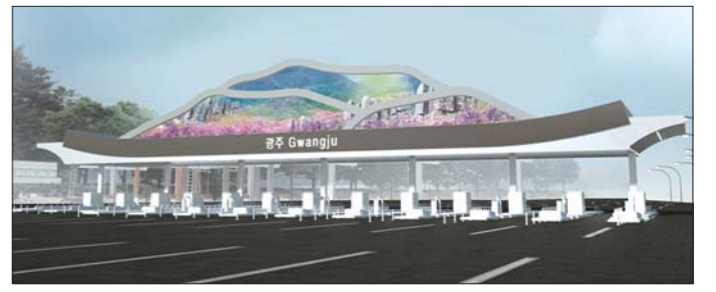
광주시는 그동안 시립미술관의 혁신발전방안의 하나로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국비 확보에 주력해왔다.

특히 이 사업은 시립미술관이 '경험하고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 구축'을 통해 중외공

원 일원의 문화시설 인프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과 교육, 자연이 함께 하는 매력적인 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중외공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5대 문화권 중 시각미디어문화권의 핵심 지역이자 세계적인 시각예술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다"며 "아시아 예술정원이 조성되면 자연과 예술, 즐거움이 함께 하는 체험문화공간이 마련돼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광주플라자 IV 관문형 폴리 조감도.

## 광주플라자,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 '2019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광주플라자'가 올해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재)광주비엔날레가 공동 추진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 '광주플라자'가 UN헤비타트 후쿠오카본부 등 4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하는 '2019년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해 건축 문화예술 프로젝트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 지역, 사업 등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이다. 본상 수상은 지난 2015년 광주 푸른길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2019아시아도시경관상을 준비하며 지난 2011년부터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플라자 30개 작품의 취지와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도시의 공공건축과 공공조형물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광주시의 의지, 단순 조형물에서 탈피해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고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축적해 가는 과정을 높게 평가했다.

시상식은 11월23일 홍콩에서 열린 예정이다.

UN헤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인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목표'로 도시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아시아도시경관상 국내 주요 수상작으로는 세종호수공원, 순천만국가정원, 군산 근대문화, 제주 올레길, 서울 한강공원 등이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 권익·근무조건 등 23개 합의

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 본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의 권익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의 단체교섭은 17개 시·도 중 광주가 처음이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합법화된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의 교섭 끝에 이룬 성과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조합활동 보장 및 편의 제공 ▲교육인원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자치구 평가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23개 항문에 대해 합의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 나주SRF거버넌스 최종합의 또 연기

### 고형연료 사용기간 명시 요구에 이견 다음달 9일 세종서 실무자 회의 개최

나주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손실보전비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문제 핵심인 '고형연료' 사용기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부분을 두고 당사자간 이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나주SRF민관거버넌스 13차 회의에서 기대했던 최종 합의안 도출이 무산됐다.

앞서 문제가 됐던 손실비용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를 현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합의서에 1년 이내에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손실비용 보전방안과 환경영향성 평가, 주민수용성 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기로 했다.

하지만 범대위 측에서 '고형 연료 사용 기간'을 환경영향성조사 기간으로 정해 기본 합의서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나주시에서는 기간 명시는 행정기관 권한으로 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못한 거버넌스 당사자들은 각각 1명씩만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완전조율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9일 세종사에서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다.

민관거버넌스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조율에 성공하게 되면 14차 회의 일정을 잡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손실비용 보전 방안은 보안을 사실상 마쳤다"며 "이날 나온 연료사용 기간 명시 부분에 대

해서도 실무자회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던 민관거버넌스는 지난 10여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기로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난방공사측에서 손실보전 비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해체 논란을 빚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이를 받아들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 전남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탄력

### 2020년 정부 예산안에 5억 반영

전남도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할 이 사업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기능성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기능성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산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실제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6천억원에서 2017년 4조2천억원, 2018년 4조3천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기능성 원료 수입량도 2016년 5천972억원에서 2017년 6천7억원, 2018년 7천217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1위의 농산물 생산기지에서 지역 특화자원인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퀴세틴', 녹차의 '카테킨', 귀리의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 가공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다. 그동안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으나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0년부터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가 가능해졌다.

윤승환기자 shyoon@srb.co.kr

##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전기사랑 봉사단의 전기사랑 실천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2019년도 전기사랑 봉사활동	일자	장소	일자	장소
	3/26	담양군 참평면	9/27	영암군(예정)
	3/29	장성군 삼계면	10/25	순천시(예정)
	4/19	목포시 용당동	11/29	함평군(예정)
	5/31	구례군 문척면	11/29	화순군(예정)
			12/13	여수시(예정)

**전남전업인 장학회의 후학양성 사업도 계속 됩니다.**

2019년도 장학생 연	학교명	학과	인원
	전남대학교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1
	조선대학교	전기공학	1
	동신대학교	전기공학	1
	목포대학교	전기및제어	1
	한영대학교	국가/산단전기공학	1
	목포과학대학교	전기	1
	순천제일대학교	전기자동화	1
	전남도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	1
	조선이공대학교	전기	1
	청암대학교	전기제어	1

**“전기공사는 법에 의거 반드시 등록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자시공시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형 -**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전연수 부회장 김규중**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3층) Tel : 062)364-0220 Fax : 062)364-0223